

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14) 오엑스엔지니어링

- 사용자를 배려한 모노즈쿠리의 원점 -

- 동사는 오리지널 휠체어를 제작하는 기업으로서 디자인과 기능면에는 철저하게 집착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휠체어 제조기업으로 성장함
- 동사는 그룹회사인 M2디자인연구소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여타 공장에도 수평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개발력과 생산기술을 더욱 높이고 있음
- 뿐만 아니라 동사는 높은 기술력에 더하여 유연한 생산체제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, 휠체어에 집착하지 않고, 사회적 수요에 맞는 '탈것'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음

□ 철저한 집착

- 국내와 패럴림픽 선수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오리지널 휠체어를 제작하는 기업 오엑스엔지니어링이 치바현에 있음
 - 창업자인 이시이 시게유키(石井重行) 씨는 전일본 바이크 대회에서 활약한 레이저, 그리고 모터저널리스트로서 활약 중이었으나, 1984년 신형 바이크의 시승중 사고로 척추손상을 입어, 휠체어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음
 - 이러한 가혹한 경험이 기능면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한 휠체어를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음
- 휠체어의 개발과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님
 - 시게유키 씨는 이륜차를 판매하는 스포츠숍의 경영자이기도 하며 사고 후 1985년 개인 프로젝트로서 휠체어 제조를 시작함
 - 실제로 스스로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장에 서고서야 비로소 개량해야 될 점이 명확해졌음
- 당시 휠체어는 복지기구로서밖에 인식되지 않아 은 일색으로 무겁고, 세세한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음

- 목표로 한 것은 사용자의 마음에 다가붙는 것을 중요시 하는 모노즈쿠리로 모터 스포츠세계로부터 진입한 만큼 디자인과 기능면에서는 철저하게 집착함
- 오엑스엔지니어링을 설립한 후 4년, 1992년에는 일상생활용 휠체어의 제조판매를 개시하고 다음해에는 테니스용 휠체어, 농구용 휠체어까지 제품군을 확대함
- 경기용 휠체어를 선수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선수들의 활약을 통하여 브랜드를 확립하는 전략임


□ 세계적으로 유명해져

- 그 후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을 조준하여 경기용 휠체어 개발에 착수함
 - 선수 한명 한명의 다양한 요망에 철저히 부응하기 위해 1밀리미터 단위까지 조정하여 극한까지 높여진 잠재력을 필요로 하는 선수의 생각을 형상화한 휠체어와 함께 경기에 임한 선수들
 -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육상 트랙 100미터, 200미터에서 금메달 2개,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금메달 선수 2명은 세계 신기록이었음
 - 이렇게 하여 에녹스엔지니어링의 이름은 세계에 널리 알려짐
- 애틀란타 올림픽 이후 동사의 휠체어에 탄 선수는 누계로 122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음
 - 착실히 실적을 쌓고 경기용에서 브랜드를 확립하는 한편, 시게유키 씨로부터 경영을 넘겨받은 현사장인 이시이 가쓰유키(石井勝之) 씨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다짐함
 - 기록갱신이 기대되는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2년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 경기용으로서 브랜드 확립기를 거쳐 본격적인 해외전개에 착수하려고 있기 때문임
-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시아와 구미 등 각 지역의 체형에 맞는 글로벌 모델
 - 알루미늄 외에도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 등 복합소재로 구성,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기술력의 수평적 전개

- 동사는 생산체제의 재검토도 추진해왔음
 - 동사는 휠체어 외에도 자전거나 생활개선기구를 개발하나 자전거의 생산을 그룹회사인 오엑스니가타에 2018년 6월에 이관함
 - 한편 같은 그룹회사인 M2디자인연구소에서는 경기용휠체어나 다품종소량 시제품 및 시제부품 생산에 특화
 - 여기에 축적된 기술력을 오엑스니가타를 비롯하여 여타 공장에 수평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개발력과 생산기술을 더욱 높이려 하고 있음

□ 높은 기술력에 더하여 유연한 생산체제도 강점

- 시게유키 씨의 개인 프로젝트로서 출발한 휠체어사업은 오늘날 매출액 90%를 넘는 주력사업으로 성장
 - 동 사업중 경기용 매출액 비율은 10%. 가쓰유키씨는 경기용이 갖는 의미에 관하여, 자동차 메이커가 F1에 참가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음
 - 동시에 휠체어에 집착하지 않고, 사회적 수요에 맞는 「탈것」에 종사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함
 - 사용자를 배려한 모노즈쿠리와 도전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분명히 이어지고 있음
- 동사야말로 지역은 물론 일본의 미래를 개척하는 건인기업임. 

【기업정보】 오엑스엔지니어링

▽소재지=치바시 와카바구 나가타쵸 2186-1	▽설립=1988년 10월
▽사장=이시이 가쓰유키(石井勝之)	▽매출액=비공개

< 참고자료 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건인기업』 2018년 8월 21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314/>